

선물용 책이 주는 혼란

연말연시 대목을 노린 각 백화점이며 상가 등의 선물상품 판매전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내 대형서점에도 나가보면 아예 선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책들만을 모아서 진열해 놓은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선물용으로 포장, 판매하는 책이 등장한 것은 벌써 2~3년 짝 전인 것으로 아는데 특히 올해는 포장의 외양이나 그 안에 포함된 책들의 목록이 예년과는 사뭇 달라져 발길을 잡는다.

선물용 상품으로 기획, 판매되는 책들로는 우선, 지난해 초에 나와 1백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배꼽」에다 「느낌」 「동냥그릇」을 묶어 빨강, 초록의 종이가방에 넣어 둔 것이

그 선명한 색상으로 눈길을 잡는다. TV방영 이후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명의 눈동자」는 책꽃이용 파일에 5권을 꽂아 포장을 했다. 「녹정기」 「秘本 삼국지」 「黃河」 등은 사각의 종이상자를 만들어 책을 담고 있고, 얼굴 없는 시인 박열씨의 베스트셀러 시집 「만남에서 동반까지」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시집 2권 또는 5권과 함께 포장, 선물카드와 함께 판매한다. 이밖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외 칼릴 지브란의 글을 모은 책 3권을 함께 묶은 것도 있고 아동용 장편만화, 동화 등을 비닐로 포장한 것도 많이 나와 있다.

이러한 선물용 책상품은 최근 우리 출판문화의

방향성과 관련, 자주 지적되고 거론되는 한가지의 '혼란'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출판업자는 책장사가 되어야 하는가, 문화의 창조자가 되어야 하는가'가 그것이다. 몇몇 출판사에서 그것도 일부를 책만을 선물용 상품으로 묶은 것을 가지고 지나친 비약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론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친 눈길로도 읽혀지는 끼워팔기, 문어팔기의 혐의를 적극적인 판매전략과 독자에의 봉사로 받아들여야 할지, 재고해보아야 할 상술로 비난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것을 어쩌랴.

결국 그 답은 독자들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들추어보고 서문이라도 읽고 나서야 책을 사려는 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책에 관련한 과대포장은 별 효과를 못 거두는 것 같다"는 한 서점인의 말은 독자들이 보내는 무언의 답을 전해주는 것도 같다.

— 박남정 기자

출판저널

등록 제97호 / 1992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允源 鄭惠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李明希
사진 — 金弘銀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敏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명위원회

權宰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彦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漢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景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觀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暎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錫
韓相震 韓勝憲 許鎮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 · 20일자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9와 금액, 주소, 성명,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18세기 프랑스인은 무슨 책을 읽었는가”라는 질문을 바꾸어 “18세기 프랑스인들이 읽을 수 없었던 책은 무엇이었나”로 좁힌다면, 계몽사상시대 프랑스혁명을 이끈 지적 원인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추론할 수 있다.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금서는 당시 대중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반체제서적이었다. 권력과 자유사상과의 첨예한 충돌을 치밀하게 실증 고찰한 「바스티유의 금서」(주명철 지음, 문학과학사)는 프랑스대혁명을 대비하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상운동이 어떻게 금지 탄압됐는가를 보여 준다. 포앵소가 작성한 바스티유 금서중 확인된 352개 작품을 분야별, 작가별로 분석한 다음의 내용을 부분발췌 소개한다.

352개 작품은 ‘신학과 종교’에 18, ‘법학과 사법’에 23, ‘역사’에 140, ‘과학과 예술’에 43, ‘문학’에 104로 분류되었다. ‘신학과 종교’에 분류된 18작품은 ‘성서’가 2종류, ‘가톨릭신학’이 5종, 기타 그리스도교신학이 11종으로 재분류되었다. ‘역사’ 분야의 책 가운데 외국역사에 관한 것이 35가지로서 그 분야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저자의 책이 프랑스에 들어온 경우도 많았지만 실권종건 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프랑스왕실이 신중히 국내저작을 금지시킨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스웨덴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혁명에 관한 서적도 이 분야에 속한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가적 관심이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영국과의 적대 관계 때문에 프랑스는 아메리카혁명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혁명에 대하여 논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의 왕은 신성한 권리를 가진 군주이지 참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제목에서 혁명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혁명사상의 짙은 계몽사상가들의 저술 여거저기에서 보인다. 특히 볼테르의 금서 「철학서한 *Lettres Philosophiques*」(1734)을 통하여 역사적 문제 제기 방법론이 새로 제시되고 있다. (중략)

특히 소설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음란서적이 20%나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누가레의 작품 「쉬제트와 페랭」은 1765년 5월 12일의 판결에서 절판 처분령을 받았는데, 이 사실로 미루어 이 책이 앙시앵 레짐하의 프랑스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압수된 책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적들은 종교적인 위선, 고상한 계층의 음탕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함으로써 귀족적 특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 앙시앵 레짐의 붕

괴에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략)

금서의 저자 197명 가운데 직업이 밝혀진 작가는 161명인데, 37명만이 참된 의미의 작가였다. 그밖의 사람들은 배우·서적상·화가·비서·역사가·교수 등으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더욱 상세히 분류해본다면, 프레데리대왕같이 국왕이 1명, 귀족 7명, 고위성직자 4명, 하위성직자 12명, 고위관리 25명, 변호사와 법조계인사 24명, 판사 2명, 의사 2명, 약사·화학자 각 1명, 교수 3명, 신문기자 6명, 상인과 농부가 1명씩이다. 이처럼 바스티유 금서의 저자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출신성분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숫자가 그 시대 전체작가의 5%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하겠다. 즉 검열제도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주장을 펼 수 있었다는 점이 1789년 혁명까지의 사상적 투쟁을 이끌어간 일부 주역들의 인적 자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중략)

이들 가운데 누구의 작품이 바스티유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었는가? 352작품의 28%에 해당하는 98가지가 197명의 9%에 해당하는 18명의 것이었다. 이것은 소수의 작가가 다수의 작품을 내놓았던 일반적인 경향과 같다. 예를 들어, 파리 국립도서관의 도서목록 231권 가운데

2권이 볼테르에 해당된 것임을 볼 때 직업적인 소수의 문필가가 다수의 저작을 내놓아 정신세계를 이끌어갔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바스티유 금서의 경우에도 352권 가운데 20권이 볼테르의 것이었다. 제2위는 돌바크남작으로서 그의 저작중 10권을 빼앗겼다. 미라보백작은 작품 8편, 메로베르, 뮐 로랑 신부, 메르시에는 각각 6편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1785년 이후에 압류된 금서 352권에 국한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18세기를 통하여 경찰이 압수한 도서목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1030여권의 제목을 얻을 수 있는데, 그중 볼테르의 작품이 51편, 돌바크남작의 것이 23편, 장자크 루소의 것이 15편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디드로의 저작 5편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략)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접점에서 포앵소목록에 나타난 바스티유 금서는 그 시대의 훌륭한 전집이라 할 수 있다. 볼테르와 같은 일급 사상가, 여러 백과사전 기고자들, 낭만주의의 아버지 루소, 중농주의자·반계몽사상가·유물론자, 고급문화의 전파자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이 한데 모여 있는 바스티유 금서는 새로운 문화의 탄생에 기여한 서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